

인베니아 (079950/KQ | Not Rated)

NDR 후기: 디스플레이 장비수주 증가로 실적 가시성 확보

인베니아는 디스플레이 패널제조장비 국산화를 목표로 2001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업체이며, 중소형/대형, LCD/OLED 까지 다양한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. LGD에 8.5 세대 TFT Backplane 용 장비뿐 아니라 TV용 대면적 W-OLED 장비를 공급/양산하고 있으며, 국내시장의 양산경험을 바탕으로 BOE, CSOT, HKC 등 중화권 업체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. 최근 OLED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6년 1,520억원을 수주했으며, 향후 추가수주도 기대된다. 신규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2Q16부터 실적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.

회사개요: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업체

- 2001년 장비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된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업체
- 2002년 한국 최초로 5세대급 Dry Etcher 국산화에 성공하며 장비시장에 진입
- LGD 8.5 세대 장비 양산, 국내 최초 8.5 세대 장비 중화권 수출 (BOE,AUO)
- 중소형에서 대형, LCD에서 OLED 까지 디스플레이 패널제조장비 분야에서 다양한 장비 라인업 보유. 주요 장비는 Dry Etcher, 합착장비, OLED 증착, OLED 봉지장비 등
- OLED 용 장비 개발로 LGD 8.5 세대 W-OLED 장비시장에 진입했으며,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BOE, CSOT 등 중화권 업체 수주 증가세

OLED 설비투자 증대, 해외고객 확대로 수주 증가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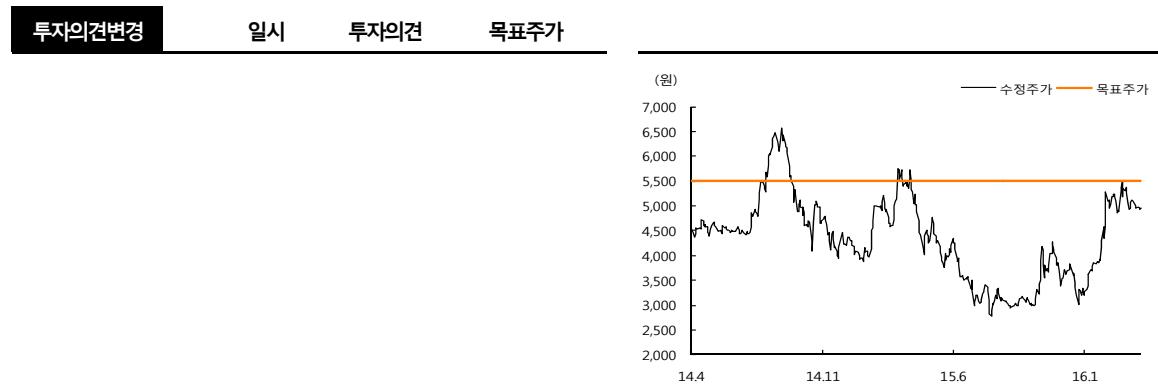
- 16/2/22일 HKC 와의 463억 규모의 장비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16/3/31 일까지 1,520억원을 수주하며 수주 실적 급성장
- 16~17년 고해상도 및 OLED 패널 생산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 증가세
- 대면적 OLED 패널 양산 경험과 BOE, HKC, CSOT 등 중화권 M/S 확대로 향후 국내/해외 추가 장비수주 지속될 것으로 전망

수주 증가로 2016년 실적 급성장 기대

- 16/2/24 일 연결 실적 전망공시에서 2016년 매출 2,000억원/영업이익 190억원, 2017년 매출 2,400억원/영업이익 230억원 제시
- 실적 성장 근거는 국내 및 중화권 디스플레이 신규 설비투자 증가
- 올해 신규 수주가 2~3월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시 신규 수주건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2Q16부터 본격적인 실적개선 가능할 전망
- 연결 실적 전망공시를 기준으로 2016E PER 이 약 6배에 불과해 벤류에이션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

주요 수주내역					(단위: 억원)
공시일	종료일	계약금액	계약상대방	비고	
2016-02-22	2016-12-31	463	HKC	HKC 8.6G Chongqing	
2016-03-02	2016-07-08	102	BOE	BOE B6 5.5G Ph2. Ordos	
2016-03-07	2016-11-30	347	BOE	BOE B10 8.5G Fuzhou	
2016-03-24	2016-09-30	85	LGD	LGD AP3 6G Gumi	
2016-03-31	2018-01-08	523	BOE	BOE B9 10.5G Hefei	

자료: 인베니아

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(김승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4 단계 (6 개월 기준) 25%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 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미만 → 매도

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(2016년 4월 25일 기준)

매수	96.6%	중립	3.4%	매도	0%
----	-------	----	------	----	----